

# 칼빈의 성경 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이 제네바 사역(Pastoral Work)에 미친 영향

안인섭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역사신학

## 1 들어가는 글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자발적으로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민족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면서 지속적으로 부흥해 왔다. 특히 해방 후에 한국 장로 교회는 정통적인 칼빈 수용과 에큐메니한 칼빈 수용, 그리고 진보적인 칼빈 수용으로 각각 발전하면서 큰 성장을 이룩했다.<sup>1</sup>

그러나 최근에는 신행 불일치, 영적 무기력, 이단의 발흥,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과 냉대, 교회 내 갈등의 고조, 교회의 분열, 교회의 도덕적 리더쉽의 감소 등의 문제들이 한국 교회 안에 제기되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과 교회의 성경 해석이 실제 삶과 분리되어 있다

\* 논문접수일 : 2009. 10. 8

논문수정일 : 2009. 12. 1

게재확정일 : 2009. 12. 8

1 In-Sub Ahn, "Calvin in Asia," in *The Calvin Handbook*. ed. H.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516-519.

는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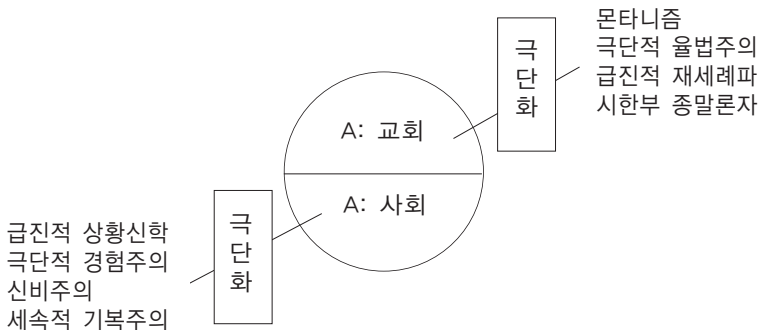
이런 문제 의식 속에서 본 논문은 먼저 역사상 어떤 다양한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해 왔는지를 살펴봄으로 칼빈이 제시하는 교회의 신학적 좌표를 살펴 볼 것이다. 그 이후에는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교회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었던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것이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나타나는 초대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주석을 하고 있는지를 연구할 것인데, 왜냐하면 칼빈은 성경에 제시된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그의 제네바 사역지에서 이룩하려고 노력했던 목회자였기 때문이다. 또한 칼빈은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제네바 교인들에게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의 내용과 강조점을 연구하게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칼빈의 성경 주석에서 설교로 이어지는 일련의 숨은 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전제되는 칼빈의 기본적인 신학적 관점은 어떠한 핏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신앙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바탕 위에서 본 논문에서는 칼빈의 주석과 설교에 근거한 그의 신학 사상이 제네바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실천적으로 구현되어 갔는지를 고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칼빈의 성경 주석과 설교 각각의 특징들과, 주석과 설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게 됨으로 한국 교회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혁 신학의 좋은 이론이 실천적인 목회의 장에까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게 신학과 실천 사이의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그 현장에서부터 개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역사적 유형

본 논문이 제기하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에 부여된 본질적인 사역을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에 놓여있다. 교회 내적 활동을 지나치게 극대화 하면서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사회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는 교회의 유형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몬타니즘, 극단적 율법주의, 급진적 재세례파, 시한부 종말론 등을 거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정황에 배타적으로 몰입하면서, 성경이 제시하는 고유하고 본질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경향들은 극단적인 상황화 신학, 극단적인 경험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현세 기복주의적인 교회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회의 성격은 다음의 표와 같이 간략하게 정리해 볼 수 있다.

성경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의 유형은 교회가 성도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간과하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교회가 사회와 삶의 정황에 함몰되지도 않는, 건강한 긴장이 유지되는 온전한 교회일 것이다. 필자는 이런 유형이 개혁주의 교회에서 발견된다고 보며, 그 전형적인 예가 칼빈의 경우라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에 대한 몇 가지 중



요한 분석들을 고찰함으로써 칼빈의 신학이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 볼 것이다.

## 2.1 트뢰체(E. Troeltsch)의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3 유형<sup>2</sup>

트뢰체의 분석에 의하면, 첫째, “교회 유형(Church Type)”은 이 세상과의 분리나 격리를 강조하지 않으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 대중들을 수용한다.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은혜와 구원이 수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분파 유형(Sect Type)”은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를 강조하며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한다. 따라서 매우 엄격하며 자발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분파 유형은 중생에 의해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이며, 법에 순종하는 것을 강조한다. 셋째 “신비주의적 유형(Mysticism Type)”은 구조나 조직을 강조하지 않으며 개인적이고 내적인 영적 경험을 중시한다. 따라서 예배의 형식이나 교리나 교회의 역사적인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회 유형은 개인적 기초 위에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것이다.<sup>3</sup> 트뢰체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그의 고전적인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2 트뢰체는 다음의 책에서 이 유형들을 설명하고 있다. 다음을 보라. E.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 O. Wy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3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993-994.

E. Troeltsch가 제시하는 교회의 3 유형		
Church Type	Sect Type	Mysticism Type
구속 사역의 결과로 은혜와 구원이 수여된 기구	“중생”의 경험을 통해서 결속 은혜보다 법을 강조	개인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중시
대중들을 수용함	엄격 자발적인 공동체	어떤 형태나 구조를 강조하지는 않는다.
교회를 세상에 적용시킴	세상에서 분리된 소그룹 중심	개인적인 기초 위에 공동체를 형성
	장차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	예배의 형식과 교리, 역사적인 요소를 약화시키는 경향

“교회 유형”의 교회는 일반 대중들을 포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결국 그리스도인 개인이 아니라 기관으로서의 교회가 거룩하다고 본다. 그러나 섹트 유형은 많은 군중들을 포섭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소수의 훈련된 제자를 세우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교회가 국가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강조한다. 한편 신비주의적 유형은 교회를 매개로 하지 않는 개인적이고 내적인 구원을 목적한다.<sup>4</sup> 이상의 신학적 강조점에 근거해서 트뢰체트의 세 유형의 교회들이 지향하는 목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 Troeltsch의 세 교회 유형이 제시하는 <b>교회의 목적</b>		
Church Type	Sect Type	Mysticism Type
국민과 대중의 교회가 됨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교회는 지향하지 않음	구원의 진리는 내적인 것이라 고 봄
거룩함은 개인에서 기관으로	거룩한 성도들로 구성되며, 개인적인 훈련을 강조	구원은 개인의 소유,
모든 국가가 교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	국가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함 국가의 종교적 중립 요구	

4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997-999.

위와 같은 신학적 기초 위에서 트뤼체체는 세 가지의 교회 유형들과 세상의 관계를 역설하는데,<sup>5</sup>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E. Troeltsch의 세 교회 유형이 제시하는 <b>교회와 세상의 관계</b>		
Church Type	Sect Type	Mysticism Type
기관으로서의 교회는 법, 권력, 재산 등 세상과 타협	세상과 반대됨을 강조	성령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길로 선택
교회 안에서 세상의 도덕과 엄격한 기록성은 각자의 길로 감	세상에서 청렴함을 강조	자유함을 강조
교회론적인 개신교는 이 이원론을 타파. 칼빈주의는 세상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		거룩한 하나님과의 내적인 교제를 중시

트뤼체체는 물론 위에서 자신이 제시했던 이 세가지 유형의 교회론들은 역사적으로는 서로 섞여서 전개되어 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가 뜻하고자 하는 바는 가톨릭 신학이 교회의 예전과 성례전적인 발전을 대표한다면, 개신교 신학은 정화된 교리를 지적인 체제로 수립한다는 점이다. 트뤼체체는 이 개신교 교회는 설교와 은혜와 교리의 권위있는 기초위에 수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편 트뤼체체는 섹트(분파)는 주로 사회적으로 하층 계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특별한 신학을 지향하기 보다는 엄격한 윤리와 삶을 강조하며, 미래에 대한 열정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트뤼체체는 결국 기독교는 이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과 갈망들과 지상의 상대성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목적을 제시한다고 보았다. 트뤼체체는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삶을 무의미하게 보지 않으며, 오히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세 인간의 삶을 자극하고 격려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직업과 삶의 과

5 Troeltsch,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997-1002.

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행 과정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트뤼체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의 유형을 통해서 살펴보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전형적인 교회 유형(Church Type)이다. 대중적인 세계관을 끌어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뤼체는 개신교는 분파주의(Sect Type)나 신비주의(Mysticism)적인 경향을 보이며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순수한 교회 유형(Church Type)을 대표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고, 전통적인 기존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교회를 지향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는 교회 유형적인 삶에 분파주의와 신비주의의 활력이 침투되었으며, 이것이 전형적인 개신교의 역사라는 것이다. 이 세가지 범주는 상호 침투하면서 역사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트뤼체는 전망했다.

## 2.2 Richard Niebuhr의 *Christ and Culture*에 나타난 교회의 5 유형<sup>6</sup>

트뤼체의 세가지 교회 유형에 근거하여 니버는 기독교와 문화(세상)과의 관계를 5가지 유형으로 해석하고 있다.

Richard Niebuhr의 <i>Christ and Culture</i> 에 나타난 교회의 5 유형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의 변형자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이것은 결국 Christ the fulfiller of Culture를 의미)

6 H. Richard Niebuh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6).

그 내용을 종합하여 재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중에서 니버 자신은 “문화의 그리스도”에 가깝지만, 그의 분석을 보면 어거스틴과 칼빈은 문화의 변혁자의 모델이다.

Richard Niebuhr의 <i>Christ and Culture</i> 에 나타난 교회의 5 유형				
Radical Christians	Church Christians : Mediating answers			Cultural Christians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문화와 역설적인 그리스도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문화의 변혁자 그리스도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문화 위에 존재하는 그리스도 (Christ above Culture)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이것은 결국 Christ the fulfiller of Culture를 의미)
Tertullian	Luther	Augustine Calvin	Thomas Aquinas	Cultural Protestantism
급진적인 종말론자	세대주의, 종말론주의	개혁주의, 칼빈주의	로마 가톨릭	문화적 토착주의

### 2.3 A. McGrath의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5 유형<sup>7</sup>

맥그래스는 기독교 영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그의 책에서, 리차드 니버가 제시했던 5가지 유형을 토대로 나름대로 재 해석하여 사회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5가지 유형으로 제공해 주고 있다. 그는 영성의 다양한 특징을 개인적인 측면과 종파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 후에, 영성은 신학과 삶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문화에 대한 교회의 태도에 따라 역사적인 교회들의 유형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여 제시하고 있다.

7 A. McGrath,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그것을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A. McGrath의 <i>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i> 에서 제시하는 교회의 5 유형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Christ the fulfiller of Culture
박해시기에 주로 등장	문화를 약하게 보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강조 세상과 긴장을 유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긴장	창조에 대한 긍정적 관심. 인간의 고귀함과 죄성을 동시에 강조. 창조와 구속. 종말론적인 소망. 개인적인 회심과 사회적 변혁.	문화는 완전하지도 약하지도 않다. 발전과 변혁의 대상. 정화와 향상 강조. “은혜는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완전하게 한다.”(토마스 아퀴나스)	세상에 대한 무비판적 긍정. 중세의 세속적인 성직자들. 19세기 독일의 개신교 자유주의(독일의 문화와 기독교를 혼합. 진보와 변영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환상)
터툴리안 급진적 수도원 운동 재세례파	루터 본 웨퍼	어거스틴 칼빈	토마스 아퀴나스	유세비우스 리츨

어거스틴과 칼빈의 영성의 특징은 창조와 구속의 틀 속에서 개인의 회심과 사회적인 변혁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칼빈의 신학은 삶의 자리에 함몰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삶을 무시하고 초월하지 않는다. 역사와 삶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경의 정신으로 개혁하는 것이 칼빈 신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칼빈은 그가 살았던 16세기 제네바라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성경에 근거한 개혁적 공동체를 수립할 수 있었을까? 이 해답을 얻기 위해서 먼저 칼빈의 주석과 설교를 비교한 후에, 그의 성경 해석과 목회 실천의 관계를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 3 칼빈의 성경 주석(Bible Commentary)과 설교(Sermon)의 비교: 사도행전 2: 43-45를 중심으로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은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서 출판되었다. 앞부분 인 1장에서 13장까지는 1552년에 라틴어판과 불어판이 같은 해에 출판되었으며, 사도행전 14장에서 28장은 1554년에 라틴본과 불어 번역이 동시에 출판되었다. 한편 칼빈은 1560년에 자신의 사도행전 주석의 2판을 출판했다.<sup>8</sup> 따라서 본 논문이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주석은 1552년에서 시작해서 1560년까지 이어지는 칼빈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칼빈은 주로 주일에는 신약을 설교했고 오후 예배에서는 종종 시편을 설교했는데, 특별한 원고 없이 설교했기 때문에 그의 초기 설교는 상당 부분 상실되고 있었다. 그러나 1549년 8월 25일부터 속기사였던 드 라거니에(Denis Raguénier)가 고용되면서 칼빈의 설교가 기록되기 시작했다. 이 속기로 기록된 설교는 다시 불어로 풀어서 집사들(Deacon)에게 넘겨져 출판되었으며, 집사들은 이 설교 출판 수익금을 제네바에 있던 난민들을 위한 구제 현금으로 사용했다.<sup>9</sup> 1549년부터 행해진 칼빈의 설교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15장까지 전체 95편으로 나뉘어서 수록되어 1550년에 출판되었다. 또한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까지의 설교는 1552년 11월 27일부터 시작하여 총 9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가운데서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설교는 1550년에 행해진 것이었다.<sup>10</sup> 따라서 칼빈의 사도행전 설교는 기록되어 출판되기 시작한 칼빈의 설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

8 W. de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81-82.

9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93-100.

10 Greef,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93-100.

이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칼빈은 제네바를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려고 진력했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상적인 초대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과 설교를 비교 고찰하려고 한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초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칼빈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으며, 또 자신의 성경 해석을 제네바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설교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본 연구는 초대 교회의 이상적 공동체에 대한 사도행전 2: 43-45절의 성경 해석(Biblical Hermeneutics)이, 그의 실제적인 목회 현장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만약 반영이 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고찰함으로, 칼빈의 성경해석학이 그의 제네바 사역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 3.1 사도행전 주석 (2: 43-45, 1552/1560년)

#### 3.1.1 생각의 일치가 형제애적 연합을 이루게 하며 구제로 표현

칼빈은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에 등장하는 함께라는 단어는 “동일하게” 혹은 “하나로”의 의미인데 이것을 장소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있었다”는 표현에 근거하여(4장 42절) “그들이 함께 일치한 생각을 가진 것”이라는 해석을 택했다.<sup>11</sup> 따라서 칼빈이 볼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형제애”로 연합되어 있었는데 그 증거가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다. 칼빈이 볼 때 이 성경 구절은 넉넉한 소유를 가진 자들이 가난한 형제들

---

11 John Calvin, *Commentaries of John Calvin* (Edinburgh: Calvin Translation Society, 1844-55); reprint (Grand Rapids, Mich.: Baker Book House, 1998), Acts 2:44. 이하 *Comm* 으로 표기함.

을 위해서 구제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이다. 이런 칼빈의 해석은 성경의 교육적 효과를 의미하고 있다.

### 3.1.2 급진 재세례파의 재산 분배와 기득 세력의 위선적 불의를 모두 반대

칼빈은 사도행전 4: 43-45 주석에서 이 구절을 극단적으로 해석하는 당시의 기독교 그룹을 배격하고 있다.

#### 3.1.2.1 급진 재세례파의 무질서하고 열광적인 재산 분배를 반대

칼빈은 재물을 서로 나누는 것을 강조한다면서, 사회 질서를 혼란시키면서 재물들을 모아서 임의로 분배하는 열광주의적인 재세례파들을 반대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이들은 모든 개인의 재산을 뒤섞고 있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sup>12</sup>

#### 3.1.2.2 질서 유지를 명분으로 불의를 행하는 위선적 기득권층을 반대

칼빈은 한편 시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면서 위선적인 주장을 펼치는 기득 세력에 대해서도 신랄하게 비평하고 있다. 칼빈은 사도행전 4: 44를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 한 쪽에서는 시민 생활의 질서를 핑계 삼아서 자기들이 소유한 것은 숨기고, 가난한 자로부터 속여 빼앗아 자기들은 남의 재산을 강탈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sup>13</sup>

위에서 보는 것처럼, 칼빈이 질서 유지를 강조하는 위선적인 기득권 세

---

12 Calvin, *Comm. Ac.* 2: 44.

13 Calvin, *Comm. Ac.* 2: 44.

력을 지적하는 오류는 다음의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시민 사회의 질서 유지라는 명분은 위선적인 기득권층의 부정의를 용인해 줄 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자신들의 소유를 은폐하고 가난한 자들을 속여서 재물을 빼앗으면서도, 자신들은 그들의 재산을 직접 강탈하지 않았으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기득권 부유층의 위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 3.1.2.3 via media (중용의 길)

칼빈은 불의한 기득 세력의 질서 유지 명분과, 혁명적인 재세레파의 강제 재산 분배를 모두 배격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칼빈이 무책임한 양비론자는 아니었다. 먼저 칼빈은 재물 분배가 “선택적”이었음을 강조한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즉 이 공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음에 설명되고 있는 그 상황을 위하여, 즉 가난한 사람들이 각각 그 요구에 따라서 구제되어야 했다는 점에 한정되어야만 했던 것이다.<sup>14</sup>

칼빈이 볼 때, 재산의 공유라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와 요구에 맞추어서 구제가 행해져야 하는 것에 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여기서 내가 방금도 말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 즉 현재 당장의 요구에 수용해 주는 일 이외에는 재산의 공유가 생겨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sup>15</sup>

14 Calvin, *Comm. Ac.* 2: 44.

15 Calvin, *Comm. Ac.* 2: 44.

칼빈의 주석을 통해서 보면, 서로의 재물을 공유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일상적인 재산을 공유하고 분배하자고 하는 사회주의적이거나 공산주의적인 개념이 아니다. 현실성이 없는 이상론적인 재산의 공유 개념은 칼빈의 해석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각자의 소유가 자기 자신의 몫이므로 그것을 이기적인 의도로 남용하는 것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칼빈이 강조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재산의 공유라는 개념은 가난한 자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재물을 나눔에 의해서 구제하라는 의미였던 것이다.

## 3.2 사도행전 설교 (2: 43-45, 1550년)

### 3.2.1 말씀

칼빈은 그의 설교에서 먼저 지난 주 설교였던 “교회의 표지(marks of the church)”를 다시 환기시키고 있다.<sup>16</sup> 먼저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강조하면서 교황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없다고 한다. 칼빈이 속한 개신교회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그 증인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칼빈은 성령의 사역을 끌어오고 있다. 말씀과 성령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부분은 사도행전 2:43-45 설교에서 처음 등장하는 성령에 대한 언급이다.<sup>17</sup>

### 3.2.2 성찬

칼빈은 사도행전 2:42절을 돌아보면서,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빵을 떼는 것(fractio panis, breaking of the bread)” 과, “교제(communication,

16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trans. R.R. McGregor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8), 67.

17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8.

communion)”를 말씀과 더불어 교회의 3대 표지로 강조하고 있다.<sup>18</sup>

### 3.2.3 교제(구제)

칼빈은 자신의 설교에서 도움이 필요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 형제를 위해서 구제 의연금을 주어 돕는 자선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는 당연한 것으로서 이 교제를 교회의 주요 표지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sup>19</sup>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누가는 구제와 자선 그 자체보다, 먼저 마음에 참된 자비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칼빈은 고린서전서 13장 3절을 인용하면서 비록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 주고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이웃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설교한다.<sup>20</sup>

칼빈은 또한 개인적인 복지에만 집착해서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누가가 사도행전 2장을 기록한 것은 곧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웃과 연합하고 선을 행해야 할 것을 설교하고 있다.

### 3.2.4 양 극단주의를 배격

칼빈은 누가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공유한다는 말 뒤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준다는 말이 따라온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하여 극단적인 입장에서 서지 않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sup>21</sup>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한 극단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고 개

18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8.

19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1.

20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4.

21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5.

인의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다. 한편 또 다른 극단은 모든 재산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급진주의자들이다. 칼빈은 그것은 성령의 의도가 아니라고 단언한다.<sup>22</sup>

칼빈은 이어서 타락한 수도승들의 가난 서약을 비판한다. 그들은 게으른 자들일 뿐이며, 가난한 사람들의 땀을 탐욕하는 돼지와 같은 자들(like pigs)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sup>23</sup>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사도행전 2장의 본문은, 노동하지 않으면서 가난한 자들의 노력을 삼켜버리라는 말이 아니다. 모든 소유를 공유했다는 말은, 이웃을 도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고 있느니, 차라리 그들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이라고 칼빈은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의 부를 버리라는 압력이 아니다. 생계가 넉넉지 못한 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하라는 의미라고 칼빈은 설교하고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sup>24</sup> 하나님이 주신 부는 부자나 빈자 모두에게 공동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빵이 부자의 최고 음식 이상의 의미가 있다. 빵이 많아 사치해서 불행해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칼빈은 이 문맥에서 기독교인에게 재물을 더 주신 이유를 설교하고 있다. 칼빈에 의하면,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하라고 주신 것이다. 칼빈은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은 탐욕에 의한 착취이고 속임이라고 보면서, 입술 뿐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sup>25</sup>

22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5.

23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5-76.

24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7.

25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7.



### 3.3 칼빈의 성경 주석과 설교의 비교 (행 2: 43-45)

칼빈의 사도행전 주석과 설교를 비교해 보자면, 칼빈의 주석이 1552년에 초판이 출판되고 1560년에 두 번째 판이 나왔다. 칼빈의 설교는 그 이전인 1549년부터 행해졌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는 주석을 출판하고 나서 설교를 했지만, 사도행전 2장 43-45절의 경우는 먼저 1550년에 설교를 한 이후에, 그로부터 2년 후 주석의 초판을 낸 후에 설교보다 10년이 지난 후인 1560년에 책으로 주석이 출판된 것이다.

#### 3.3.1 유사한 면

칼빈은 주석과 설교에서 공히 공동체 내의 가난한 자를 향해서 물질적 구제 이전에 먼저 마음으로부터 동정하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나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실제적으로 구제하라고 말했다. 그러나 칼빈은 사도행전 2장에 대해서 개인적인 재산을 공유하라고 해석하지는 않았다. 칼빈은 급진적 재산 공유파와 위선적으로 질서 유지를 주장하는 기득권층의 양 극단주의를 배격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 3.3.2 상이한 면

##### 3.3.2.1 주석의 “피타고라스” vs. 설교의 “솔로몬”

3.3.2.1.1 주석에만 등장: 피타고라스주의자들(Pythagoreans)의 공유 개념을 사용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에 나오는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나누어 준다는 구절을 주석하면서 흥미롭게도 “피타고라스주의”라는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의 주석에서 두드러지는 방법론

중의 하나는 성경 해석에 철학적 개념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은 재산의 공유를 주장하면서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급진주의자들에게 피타고라스주의자들의 예를 들어서 반박하고 있다.

“친구들 간에는 모든 것이 공유다”라는 옛 격언을 우리는 알고 있다. 피타고라스파 사람들(Pythagoreans)이 그렇게 말했을 때 그것은 각 사람이 자기의 집을 개인적으로 관리하지 않았든지 혹은 자기들의 아내를 공동으로 소유하였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sup>26</sup>

칼빈은 공유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피타고라스파의 경우도 재산과 가정의 공유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하면서, 그리스 철학을 매우 긍정적인 문맥에서 활용하고 있다. 칼빈은 각자의 재물을 팔아서 서로 공유했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의 주석에서 “누가가 말하고 있는 재산의 공동체는 가정 관리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다”<sup>27</sup>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기존의 가정 제도와 사회 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의미의 재물 공유가 아님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 3.3.2.1.2 설교에만 등장: 솔로몬의 훈계(잠언 5: 15-17) 사용

칼빈은 사도행전 2장 43-45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웃을 정당하고(justly) 공정하게(equitably) 다루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칼빈은 믿음이 족하다고 하면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동정이 없으면 하나님을 부인한 것이라고까지 선포하고 있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sup>28</sup>

26 Calvin, *Comm. Ac.* 2: 44.

27 Calvin, *Comm. Ac.* 2: 44.

28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8.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구약의 솔로몬의 경우를 제시하면서(잠언 5: 15-17) 설교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주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집에 샘이 있는 자는 물이 넉넉하다. 그러나 그 샘의 물이 흘러 나와서 이웃이 그것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잘못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그의 사도행전 설교에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예화로 들면서, 그 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웃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다면 그 샘의 주인은, 비록 이웃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까지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그러므로 칼빈의 사도행전 설교의 초점은 이것이다.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부자들의 경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다는 정도의 소극적인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칼빈의 설교에 의하면, 부자들의 재산은 하나님께서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맡겨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부자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지 않는다면 그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때 칼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다.<sup>30</sup>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자비 안에서 서로를 연결하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칼빈은 사도행전 2장의 주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설교에서는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사용하고 있다. 칼빈은 누가가 그들이 먼저 함께 존재하는 것에 우선권을 두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진정한 자비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단지 구제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칼빈은 여기에서 고린도전서 13장 3

29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8.

30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8-79.

절을 인용하면서 비록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것을 주고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웃을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구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이다.<sup>31</sup>

이처럼 칼빈이 주석에는 없지만, 일반 대중들에게 설교할 때는 성경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문자를 잘 알지 못하던 당시의 일반 대중들에게 설교를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교육하려는 목회적 배려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3.3.2.2 설교에만 등장: 쾰빙글리적인 뉘앙스를 수용하는 성찬론(1550년)

이때 주목할 만 한 것은 성찬의 의미에 대해 설교할 때 사용되는 칼빈의 단어들이다. 칼빈은 예수를 희생제물로 주신 것을 “기억나게”(이하 강조는 필자의 것임) 하기 위해서 만찬을 주신 것으로 설교한다. 예수의 죽음과 고난만이 우리 죄를 사하며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성찬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다.<sup>32</sup>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이 성찬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remind)” 남겨놓으셨다고 설교하고 있다.<sup>33</sup> 그래서 칼빈은 성찬은 우리의 영적이고 육체적인 영양공급(nourishment)이 그 안에만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식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라고(signify)” 설교한다.<sup>34</sup>

이상의 칼빈의 설교에서 성찬의 의미를 해석할 때 등장하는 “기억하게 한다”, “생각한다”, “상징한다” 등의 단어는 전형적인 쾰빙글리적인 표현

31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4.

32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8.

33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9.

34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9.

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칼빈은 성찬에는 우리 안에 형제에  
 에 근거한 진정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35</sup>

이런 특징은 뫼 안서(Wim Janse) 박사가 강조하듯이, 제네바가 쾰빙글리  
 설교자들과 성만찬에 대한 신학적 합의를 이루었던 Consensus Tigurinus가  
 이루어진 해가 1549년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sup>36</sup>

### 3.3.2.3 설교에만 등장: 성령의 사역을 강조(6회)

칼빈은 교황제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교회가 없  
 다고 설교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칼빈이 속한 개신교회의 증인은 바로  
 성령이시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말씀과 성령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  
 고 있는 것이다.<sup>37</sup> 또한 칼빈은 교황주의자에 대조적으로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령의 증거를 언급하고 있다.<sup>38</sup> 뿐만 아니라 칼빈은 개  
 인만을 고려하고 타인을 고려하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에서 누가  
 가 말하고 있는 것은 곧 성령께서 누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설  
 교하고 있다. 역시 말씀과 성령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sup>39</sup> 그 외에도 칼빈  
 은 설교에서 세 차례 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동일한 본  
 문인 칼빈의 주석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현상은 칼빈이 그의 설교  
 를 성령의 사역과 깊이 관련시켜서 이해하고 있는 신학적 특징을 잘 드러  
 내 주고 있는 것이다.<sup>40</sup>

35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1.

36 W. Janse, “Calvin’s Eucharistic Theology: Three Dogma – Historical Observations,” 제9회  
 세계칼빈학회, 안인섭 역, 『칼빈연구』 제5집, 93-142.

37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8.

38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69.

39 Calvin,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75.

40 안인섭,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설교 방향: 에베소서 4  
 장 11절의 ‘목사’와 설교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9. 5),  
 1-14.

## 4 칼빈의 성경 해석학(Biblical Hermeneutics)과 제네바 사역

### 4.1 칼빈의 설교: 하나님의 통치의 수단

칼빈의 경우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지는 하나님의 통치는 설교를 통해서 수행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만유의 주로서의 통치권을 부여 받으셨다.<sup>41</sup>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 통치는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sup>42</sup> 칼빈에 의하면, 하늘로 높이져서서 만유의 통치권을 소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성령으로, 그리고 그의 말씀의 수단에 의해서 우리를 통치하신다.<sup>43</sup>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설교와 그때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는 성령은 칼빈에서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에 의해서 선포될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다.<sup>44</sup> 그러므로 칼빈의 신학적 구조를 보면 교회는 설교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것이다.<sup>45</sup>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 제네바 교회의 자

41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333-337.

42 Calvin,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357.

43 W. Balke, *Calvijn en de Bijbel* (Kok: Kampen, 2003), 83-84.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설교자의 입은 그리스도의 입이라고 할 수 있다.

44 안인섭,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설교 방향: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와 설교 이해를 중심으로,” 1-14.

45 John Calvin,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ed. G. Baum, E. Cunitz and E. Reuss (Brunswick and Berlin, 1863-1900) Vol.51, col.196(=Calvin, Comm. Ep. 4:11), “Primum significat, non esse hoc inventum humanum, sed sacrosanctam Christi institutionem, quod regitur ecclesia verbi praedicatione.”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를 이하 CO로 표기함.

유를 유지하고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을 때, 칼빈에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안은 설교의 자유와 개혁을 위한 투쟁이었던 것이다.<sup>46</sup>

## 4.2 16세기 제네바

칼빈에게 있어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칼빈이 그의 설교에서 청중들의 삶의 자리를 매우 중시했다는 점이다. 칼빈의 설교가 드 라거니에(Denis Raguenier)에 의해서 속기된 후 출판되었을 때 그가 보여준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칼빈은 자신의 설교는 제네바의 회중(flock)들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에 기록된 설교문이 유럽의 대중들에게 읽힌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sup>47</sup> 그렇다면 칼빈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제네바에서 이루어 가고 계시다고 믿고 있었던 칼빈 자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어떤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이 자신의 성경 해석에 근거한 신학 사상을 그의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펼쳐가고 있었는지는 우리에게 더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4.2.1 16세기 유럽의 목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중세 말과 종교개혁 시대의 사회를 단적으로 묘사할 만한 단어는 불안이라고 할 수 있다. 페스트의 창궐과 끝없는 여러 전쟁들은 유럽의 봉건 사회의 해체를 가속화 시키고 있었다. 안정되지 못한 환경 때문에 결식하는 군인들과 난민들이 점증하고 있었으며 모든 유럽이 이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었다. 이런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이제 형성되기 시작하는

46 Balke, *Calvijn en de Bijbel*, 80-81.

47 Moehn, "Sermons," in *The Calvin Handbook*. ed. H.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176.

유럽 각 국가들의 사회복지 법들은 조직화되고 있었고 중앙집권화하면서 교회의 영역을 넘어 정비되고 있었다.<sup>48</sup>

#### 4.2.2 제네바의 정치적 상황의 발전

그 중에서도 스위스의 제네바는 정치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에서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었던 도시 중 하나였다. 오랜 사보이의 통치 하에 강력하게 로마 가톨릭을 신봉하던 이 스위스의 작은 도시 국가는 로마 교회의 주교들이 오히려 사보이인들과 결탁하자 독립 의식을 강하게 갖게 되었다. 결국 종교개혁 사상과 도시 국가의 독립이라는 명분이 맞물리면 1534년에 개신교 도시 국가로 독립할 수 있었다.<sup>49</sup> 따라서 로마 가톨릭 교회에 속해 있던 모든 교회 재산과 땅들이 시에 속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제네바 사회는 극도의 불안과 격동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일반적으로 1555년을 기점으로 제네바는 정치적 평온을 갖게 되었으며 특히 이 시기가 칼빈의 리더십이 제네바에서 확고하게 수립되는 시점이었다.

#### 4.2.3 제네바의 사회적 환경

제네바가 종교개혁 독립국가로 자리를 잡으면 잡을수록 국경을 맞대고 있었던 프랑스에서 가혹하게 박해를 받던 개신교도들이 스위스로 몰려오게 되었으며 작은 도시 국가에 프랑스 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었다.

---

48 E.A.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93-113.

49 W.G. Naphy,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113-132. ; W. F.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김영배 역, 『건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35-49.



제네바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였던 칼빈은 위와 같은 제네바의 환경 속에서 목회를 감당하고 있었다. 그의 교회 안과 제네바 사회 속에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으며, 칼빈은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목회적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었다. 이때 칼빈은 성경에 근거하여 수립된 신학적 원칙을 가지고 설교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이 함께 공존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진력했던 것이다.

### 4.3 성경 해석에 근거한 제네바 사역

칼빈 당시 제네바의 점증하는 목회적 필요는 칼빈으로 하여금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을 해결해야만 하도록 했는데, 이때 칼빈은 성경 해석에 기초하는 그의 신학적 원칙 위에서 목회 사역적 해법을 찾았다. 그 사역은 초대 교회에는 분명하게 존재해 있었으나 점차 역사에서 사라져 있었던 교회의 직제를 재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었다.

#### 4.3.1 성경 해석과 집사직

##### 4.3.1.1 성경 주석과 집사직

올슨(J.E. Olson) 박사에 의하면 16세기 유럽은 신,구교를 구분하지 않고 교회의 구제 사역에 대한 관심이 컸다. 특히 칼빈은 집사(Deacon) 제도를 수립해서 구제를 체계적으로 감당하도록 했다. 이때 칼빈이 집사 제도를 세운 것은 스트라스부르크 시절(1538-1541)에 마틴 부셔(M. Bucer)의 직제론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큰데, 근본적으로 이 집사 직제는 칼빈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는 것이다.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을 주석하면서 이것을 이중의 집사직으로 이해

했다.<sup>50</sup> 먼저 “주는 자들”이란 공적으로 교회의 재산을 분배하는 집사로 보았다.<sup>51</sup> 그러나 칼빈은 자비심을 가지고 병자들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일을 맡은 집사도 별도로 있다고 해석했다. 칼빈이 볼 때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나누어 주기 위한 행정적인 일과, 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직접 방문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는 목회적 사역은 각각 다른 형태의 집사 사역이었다.<sup>52</sup> 이 집사들은 각각 복지 행정사(*procureur*)와 구제도우미(*hospitalliers*)의 이름으로 활동했다.<sup>53</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구제를 위한 행정적 책임을 맡은 집사들은 로마서 12장 8절에 있는 대로, “기만이나 사람에 대한 차별없이 성실하게” 맡은 임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sup>54</sup> 한편 직접 가난한 사람들과 환자들을 방문해서 격려하는 집사들은 역시 로마서에 기록된 대로 “즐거운 마

50 1540년에 처음 출판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은 1551년과 1556년에 더 증보되어 출판되었다. Cf. 안인섭, “칼빈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 해석 발전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97호 (2008년), 329-353.

51 CO 49. cols. 230-249 (Rom. 12:8). “Per *metadidontas*, de quibus hic loquitur, non eos intelligit qui largiuntur de suo: sed diaconos qui publicis ecclesiae facultatibus dispensandis praesunt.” 칼빈의 구제 사역과 사회 복지 사역과 관련된 뛰어난 연구는 올슨 박사와 맥키 박사의 연구다. J.E. Olson, *Deacons and Deaconesses through the Centurie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5), 107-149.; J.E. Olson, “De Zorg voor de armen en het leven van de vluchtelingen in het Geveve van Calvijn,” in: W. Balke, J. C. Klok, W. van’t Spijker, *Johannes Calvijn: Zijn Leven, Zijn Werk* (Kampen: Kok, 2008), 155-158.; E. A.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한국 학자의 연구는 다음을 보라. 황성철, “집사 직무에 대한 실천신학적 이해 연구: 칼빈의 집사 직무관의 적용과 Gerben Heitink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74호 (2003년), 127-169.

52 CO 49. cols. 230-249 (Rom. 12:8). “Per *eleontas* autem, viduas et alios ministros qui curandis aegrotis, secundum veteris ecclesiae morem, praeficiebantur. Sunt enim functiones duae diversae, *erogare pauperibus necessaria, et suam illis tractandis operam impendere.*”

53 J.E. Olson,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 D.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163-167.

54 CO 49. cols. 230-249 (Rom. 12:8). “*Caeterum prioribus assignat simplicitatem, qua sine fraude aut personarum acceptione fideliter sibi commissa administrant: ...*”

음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sup>55</sup>

#### 4.3.1.2 기독교강요의 성경 해석과 집사직

칼빈은 또한 성경 주석뿐 아니라 그의 기독교강요에서도 역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직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교회의 직분 중에서 “다스리는 일과 구제하는 일 두 가지는 영구적”인 것이라고 보았다.<sup>56</sup> 이 내용은 1543년에 출판된 기독교강요 3판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최종판(1559년)까지 지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즉 칼빈은 스트라스부르크 시절(1538-1541) 마틴 부셔(M. Bucer)에게 영향을 받은 후 제네바에 다시 돌아와서 구제를 위한 직분으로서의 집사직을 포함한 교회 직제에 대한 사고를 공고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집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으로 보았다.<sup>57</sup> 그런데 칼빈은 이 집사직을 두 종류의 직책으로 나누었는데, 그 사고의 근거에는 로마서 12장 8절에 대한 성경 해석이 존재한다. 그는 로마서를 따라서 “구제하는 자”와 “공물을 베푸는 자”로 두 가지 직책을 나눈 후에 이것을 “집사직”으로 직결시켰다.<sup>58</sup>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같은 기독교강요에서 “구제 물자를 나누어 주는 집사”와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모두 집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도 디모

55 CO 49. colms. 230-249 (Rom. 12:8) “ab his obsequia vult exhiberi cum hilaritate, ne morositate sua (quod evenire plerumque solet) gratiam officiis detrahant.”

56 CO. 2. colm. 782. (*Institutes*: 1559, 4.3.8). “Duo autem sunt quae perpetuo manent: gubernatio et cura pauperum.”

57 CO. 2. colm. 783. (*Institutes*: 1559, 4.3.9). “Cura pauperum diaconis mandata fuit.”

58 CO. 2. colm. 783. (*Institutes*: 1559, 4.3.9). “Quaquam ad Romanos duo ponuntur genera. Qui largitur, inquit illic Paulus, id faciat in simplicitate; qui miseretur, in hilaritate. Quum de publicis ecclesiae muneribus eum loqui certum sit, oportet duos fuisse gradus distinctos.”

데전서 5장 9-10절에 대한 성경 해석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sup>59</sup>

칼빈이 기독교강요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와 디모데전서에서 제시되었던 이 두 종류의 집사직을 잘 본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칼빈은 구제의 두 가지 형태의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직에 대해서, 그 기원과 임명과 직분은, “누가가 사도행전에 기록” 했던 것임을 강조하면서 사도행전 6장 3절의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sup>60</sup>

이상에서 본 것처럼, 칼빈은 제네바 도시 국가의 목회 현실에 매우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었던 구제 사역을 그의 성경 해석에 근거하여 주석과 기독교강요에서 집사의 직분으로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울러 주목할 것은, 이 두 종류의 집사직에 대한 기독교강요의 해석들은 1543년에 출판된 기독교강요 3판에서부터 나타나서 1559년의 최종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칼빈의 사상이라는 점이며, 여기에서 우리는 마틴 부씨의 영향을 인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칼빈의 성경해석과 또 이에 근거한 목회 사역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시대에 함께 개혁 교회를 세워갔던 동역자들과 선각자들과의 신학적 소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59 CO. 2. colm. 783. (*Institutes*: 1559, 4.3.9). “Nisi me fallit iudicium, priore membro diaconos designat, qui eleemosynas administrabant, altero autem eos qui pauperibus et aegrotis curandis sese dedicaverant; quales erant viduae, quarum mentionem facit ad Timotheum (1 Tim. 5, 9).”

60 CO. 2. colm. 783. (*Institutes*: 1559, 4.3.9). “Si hoc recipimus (ut omnino recipiendum est), duo erunt genera diaconorum: quorum alteri in rebus pauperum administrandis, alteri in pauperibus ipsis curandis ecclesiae servant. Tametsi autem nomen ipsum *diakonias* latius patet, hos specialiter tamen diaconos scriptura nuncupat quos eleemosynis dispensandis gerendaeque pauperum curae praefecit ecclesia, et velut publici pauperum aerarii oeconomus constituit: quorum origo, institutio ac functio a Luca in Actis (c. 6) describitur... En quales habuerit diaconos apostolic ecclesia, quales ad eius exemplum habere nos conveniat.”

### 4.3.2 집사의 사회 봉사 활동

칼빈은 제네바 목회 현장에서 제기되는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의 문제를, 그의 성경해석에 근거해서 집사 제도라는 직제를 통하여 목회적으로 해결해 갔다. 당시 개신교 독립도시로 막 출발한 제네바는 옛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재산들을 회수하여 종합구빈원(Hôpital Général)에 투자하여 가난한 시민들을 구제하고 있었다.<sup>61</sup> 제네바 국가가 주도했던 이 구제 사업을 칼빈은 목회적 영향력을 발휘하여 더욱 권장했다.

또한 제네바에 몰려왔던 주로 프랑스 난민들을 위해서 칼빈은 직접 1545년부터 프랑스 구호기금(Bourse française)의 창립에 적극 개입하여 가난한 난민들을 위한 국제적인 구호 사역을 위해 헌신했다. 이 프랑스 구호기금은 국가의 기관이 아니었으며, 국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운용되었다.

제네바의 종합 구빈원과 프랑스 구호기금 모두의 경우, 성경으로부터 도출되었던 두 종류의 집사들, 즉 복지 행정사(*procureur*)와 구제도우미(*hospitalliers*)들이 직, 간접으로 깊은 관련을 맺고 활동했다.<sup>62</sup>

## 5 결론: 칼빈 신학의 특징 - 하나님의 통치(Regnum Dei)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이 21세기에든 여전히 주목을 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시대의 교회와 사회에서 제기되는 문제 의식을, 성경의 정신에 근거하여 설교와 목회 사역을 통해 해결을 도모했으며, 또한 실제로 성공했다는 점이다. 칼빈은 제네바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무시하지도 않았으며, 또한 그 상황에 함몰되지도 않았다.

61 R.M. Kingdon,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4. *Calvin's Work in Geneva*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22-41.

62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106-109. ; J.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sgrov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89), 107-126.

칼빈 신학의 중심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록 다양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칼빈의 신학과 실제 목회 사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상은 “하나님의 통치(Regnum Dei)” 혹은 “그리스도의 통치(Regnum Christi)” 일 것이다. 칼빈의 신학을 지탱하는 두 개의 기둥은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동시에 구속주라는 것이다. 따라서 온 우주 만물과 창조 세계와 인간의 사회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벗어날 수 없다. 비록 인간의 범죄와 타락 이후 인간은 이 세상에서 탐욕과 죄와의 전투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들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며 그의 영광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칼빈은 이 문맥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영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칼빈이 볼 때 이 두 세계는 서로 혼합되거나 분리되지 않으면서<sup>63</sup> 각각 나름의 법과 체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sup>64</sup> 먼저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관계되는데 이 세계를 통치하는 정부가 교회이다. 한편 외적인 사회는 법을 토대로 인간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데 이 영역을 통치하는 정부는 국가가 된다.<sup>65</sup> 칼빈은 이 두 기관 모두 하나님에 의해 수립된 신적 기관이며, 결국은 이 두 정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통치 하에 존재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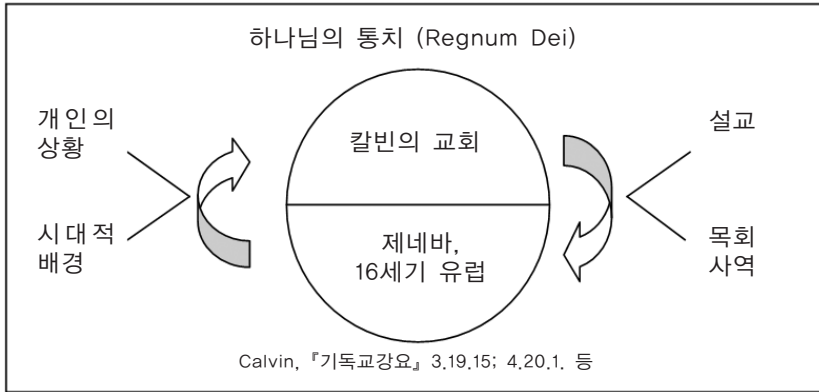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는 칼빈이 목회하고 설교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 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칼빈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제네바 시와 16세기 역동적인 유럽 안에서도 이루어 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칼빈의 교회와 16세기 제네바 사회를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하

63 John Calvin, *Joannis Calvinii Opera Selecta*, ed. P. Barth & G. Niesel. Vol. V. (München, 1926), 471-2. (=Calvin, *Institutes*, 4.20.1). *Joannis Calvinii Opera Selecta* 은 이하 OS로 표기함.

64 Calvin, *OS*. IV, 199-200.(=Institutes,3.19.15)

65 W. Bouwsma,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204.

에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의 그림이 의미하는 것은, 한편으로 교회가 역사적 상황을 초월하여 배타적으로 존재한다는 중세의 극단적인 수도원주의나 16세기의 재세례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 칼빈의 주장은, 교회가 존재하는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긍정하면서 세속화 하거나 기독교와 문화를 혼합하는 문화개신교주의와도 차별되는 것이다. 필자는 이것이 칼빈 신학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으로 이해한다. 이런 칼빈의 사상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신학과 목회에 매우 큰 유익을 줄 것이다.

## 참고문헌

- 안인섭.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에 비추어 본 한국 교회의 설교 방향: 에베소서 4장 11절의 ‘목사’와 설교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개혁신학회 정기 학술대회. 2009.
- \_\_\_\_\_. “칼빈이 제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로마서 12장 해석 발전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97호(2008년).
- 황성철. “집사 직무에 대한 실신학적 이해 연구: 칼빈의 집사 직무관의 적용과 Gerben Heitink의 방법론을 중심으로.” 『신학지남』 274호(2003년).
- Ahn, In-Sub. “Calvin in Asia.”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 J. Selders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Balke, W. *Calvijn en de Bijbel*. Kok: Kampen, 2003.
- Bouwisma, W. *John Calvin: A Sixteenth Century Portrait*.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8.
- Calvin, Joh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1559). Edited by J.T. McNeill. Translated by F.L. Battl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s* 20-21. 2 vol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0.
- \_\_\_\_\_. *Serm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Chapters 1-7*. Translated by R.R. McGregor.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8.
- \_\_\_\_\_. *Sermons on the Epistle to the Ephesian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1979.
- Graham, W. F.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Translated by 김영배 역. 『진실적인 혁명가 칼빈: 사회와 경제에 끼친 영향』. 서울: 생명의 말씀사, 1995.
- Greef, W. de. *The Writings of John Calvin, Expanded Edition: An Introductory Guide*.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8.
- Ioannis Calvini Opera quae supersunt omnia.* (= CO). Edited by G. Baum, E. Cunits and E. Reuss. 59 vols. Corpus Reformatorum 29-88. Brunswick and Berlin, 1863-1900.
- Joannis Calvini Opera Selecta.* (= OS). Edited by P. Barth & G. Niesel. 5 vols. München, 1926.
- Janse, W. “Calvin’s Eucharistic Theology: Three Dogma – Historical Observations.” 안인섭 역 『칼빈연구』 제5집.
- Kingdon, R.M. “Social Welfare in Calvin’s Geneva.” In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4. *Calvin’s Work in Geneva*.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 McGrath, A. *Christian Spirituality: An Introduction*. 김덕천 역. 『기독교 영성 베이직』.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6.



- McKee, E.A.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Droz, 1984.
- Moehn, W. "Sermons." In *The Calvin Handbook*, edited by H. J. Selderhuis. Grand Rapids: Eerdmans, 2009.
- Naphy, W.G. "The Renovation of the ministry in Calvin's Geneva." In *The Reformation of the Parishes: The Ministry and The Reformation in Town and Countr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93.
- Niebuhr, H. R. *Christ and Culture*. New York: Harper & Brothers Publishers, 1956.
- Olson, J.E. "Calvin and social-ethical issues." In *The Cambridge Companion to John Calvin*, edited by D.K. McKi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_\_\_\_\_.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sgrov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89.
- \_\_\_\_\_. *Deacons and Deaconesses through the Centuries*. St. Louis: Concordia Publishing House, 2005.
- \_\_\_\_\_. "De Zorg voor de armen en het leven van de vluchtelingen in het Geveve van Calvijn." In W. Balke, J. C. Klok, W. van't Spijker. *Johannes Calvijn: Zijn Leven, Zijn Werk*. Kampen: Kok, 2008.
- Troeltsch, E. *The Social Teaching of the Christian Churches*. Translated by O. Wyon. New York: Harper & Brothers, 1960.

## **Influence of Calvin's Biblical Hermeneutics on Calvin's Pastoral Work in Geneva**

Ahn, In-Sub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Korean Church made a great developed in the process of the reception of John Calvin's Theology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modern history. Nowadays, however, Korean Church encounters with the problems raised from the separation of the Bible interpretation and the daily life. In this background, this paper researches the influence of Calvin's Biblical Hermeneutics and his pastoral work in Geneva.

First, in order to understand Churches' type in the society, this paper surveys the theory of E. Troeltsch with his book, *The Social Teachings of the Christian Churches*. He proposed three types of Church models - Church Type, Sect Type and Mysticism Type. Richard Niebuhr also suggested five types of Churches in the world in his *Christ and Culture*. They are "Christ against Culture,"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 "Christ, the Transformer of Culture," "Christ above Culture" and "Christ of Culture, namely Christ the fulfiller of Culture." According to his idea, Calvin and Augustine are named as the transformers of the Culture.

With these backgrounds, this paper researches Calvin's interpretation of Acts 2: 43-45 and his sermons with the same Bible text. Acts 2 shows the characters of the Early Church community. How did Calvin interpret it? Calvin denied the argument of the radical reformations as well as that of the hypocritical conservatives. Calvin finds his own way as "via media."

When we think about Calvin's sermon with the same Acts 2: 43-45, we find almost similar meanings. However, in his sermons, Calvin shows three characters. He tried to use the Bible instead of the philosophical terms. In addition, Calvin uses Zwinglian nuance in case of the Sacraments. Finally, Calvin emphasizes the work of Holy Spirit in his sermon.

How, then, did Calvin apply his Biblical Hermeneutics in Geneva with his pastoral works? In the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 Calvin applied his idea in Geneva, based on his Biblical hermeneutics from Acts 2. Especially, with the Biblical concept of double functions of “deacons, such as ‘procureur’ and hospitalliers,” Calvin contributed into the social works of Geneva with the organizations of “General Hospital” and “Bourse France.” As a conclusion, through Calvin’s Bible hermeneutics and sermon and his pastoral works in Geneva, Calvin tried to accomplish “Regnum Dei” both in the Church and in the society of Geneva.

*Key Words* : Calvin, Biblical Hermeneutics, Sermon, Pastoral Work, Geneva